



보도 일시	2023. 1. 3.(화) 10:00	배포 일시	2023. 1. 2.(월) 14:00
담당 부서 <총괄>	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	책임자	과 장 김위정 (044-215-5310)
		담당자	서기관 유예림 (yerim@korea.kr) 사무관 강성빈 (a0909876@korea.kr)

부처별 핵심임무 성과지표·달성도 공개 및 12대 핵심재정사업 집중 관리 등 성과관리체계 개편

- 「'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」 국무회의 보고 -

- ☐ 부처별 핵심임무를 반영한 대표 성과지표 설정·공개(45개 부처, 105개 지표)
 - ☐ 3년 연속 평가 미흡 사업 원칙적 폐지 등 연례적 부진사업 관리 강화
 - ☐ 12대 핵심재정사업(군)에 대해 향후 5년간 전 주기적 성과관리
- ☐ 기획재정부는 '23.1.3.(화) 개최된 제1회 국무회의에 「'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」을 보고하였음
- 「'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」은 '22.8월에 발표한 「'22~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」을 토대로 최초로 수립한 단년도 계획*으로,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,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함
- * 국가재정법 개정('21.12)에 따라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수립 의무화

※ 「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」 개요

- ❶ (성과목표관리) 부처단위의 재정운용 성과 측정을 위해 도입('03년~)
→ 예산편성시 '성과계획서', 결산시 '성과보고서'를 작성하여 국회제출
 - ❷ (사업성과평가) 성과에 기반한 개별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해 도입('05년~)
→ 기재부 등 6개 부처에서 10개 사업성과평가제도* 운영 중
- * (기재부) 자율평가, 심층평가, 기금평가, 보조사업평가, 복권기금평가
(과기부) R&D사업평가, (고용부) 일자리사업평가, (균형위) 균형발전평가,
(행안부) 재난안전평가, (중기부)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

[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]

□ 「' 22~' 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」의 취지를 반영하여
재정운용 성과의 책임성·투명성 확보 및 성과관리의 효율화 추진

- ❶ (책임성) 개별 부처가 확실히 책임지고 재정사업의 성과 창출
- ❷ (투명성) 재정운용의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
- ❸ (효율성) 형식적이고 중복되는 성과평가는 최소화하고 핵심성과에 집중

[중점 추진과제]

① 성과목표관리

- 국민들이 부처별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임무를 반영한 대표 성과지표 설정·공개(45개 부처, 105개 지표)
 - * 예시:(기재부) ❶인당 GNI(원화 기준), ❷관리재정수지(GDP 대비 비율)
(복지부) ❶상대적 빈곤율, ❷국민일반건강검진 수검율, ❸노인돌봄서비스 이용비율
- 성과목표, 실적치 등을 ‘열린재정’ 누리집(www.openfiscaldata.go.kr)을 통해 인포그래픽으로 공개할 계획(‘23.1월 말~)
- 부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수를 현재의 절반 이하(1천여개→500개 이하)로 대폭 축소(‘23.9월 국회제출)
- ‘22년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성과목표 관리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(‘23년 상반기)
 - * (기존) 결산시 각 부처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‘열린재정’ 누리집에 공개
(개선) 기존 + 기재부가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도를 종합하여 국무회의 보고

② 사업성과평가

- 「1사업-1평가」 원칙 하에 각 사업별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평가를 받도록 재정사업 성과평가 중복을 최소화
-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중복되었던 일자리사업 평가(고용부)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(중기부) 대상 사업을 ‘23년부터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
- * (기존) R&D평가, 재난안전평가, 균형발전평가, 복권기금평가 대상 자율평가 면제
(개선) 기존 + 일자리사업평가,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대상 자율평가 면제

- 다만, 6개 부처의 개별 평가에 ‘공통평가항목’을 도입*하여 지표별 작성 지침 및 양식을 통일함으로써 평가 효율성을 제고하고,
 - * 사업계획의 적정성, 집행 효율성, 성과달성도, 환류 및 개선노력 등
- 평가단위를 ‘단위사업’에서 ‘세부사업’으로 일원화하여 평가결과와 예산편성이 직접적으로 연계*되도록 개편
 - * 미흡등급 단위사업 내 준수한 성과의 세부사업까지 감액하는 ‘평가결과 - 예산 편성 간 괴리’ 문제 해결 기대
- 기존 자율평가에만 적용*하던 총 평가 대상사업의 일정 비율 지출구조 조정 원칙을 쏠 평가제도로 확대**하고,
 - * '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사업 중심으로 1.57조원 지출구조조정
 - ** (기존) 개별사업 단위 예산 삭감 또는 예산 삭감 원칙 없음
(개선) 기존 + 각 평가제도별로 평가대상 총 예산의 일정 비율 삭감
- 2년 연속 미흡사업의 제도개선 계획 마련 의무화, 3년 연속 미흡사업의 원칙적 사업 폐지 등 연례적 부진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

③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

-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(군)을 선정하여 단년도 성과관리가 아닌, 향후 5년간(‘23~‘27) 집행 점검-애로 해소-성과 관리-예산 편성 등 전 주기 집중 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 지원
 - 국정과제, 23년 예산 등을 통해 밝힌 국정운영 핵심가치를 반영하여 선정
 - * ❶사회 안전망, ❷사회적 약자 복지, ❸청년지원 ❹생활물가 안정, ❺지역균형발전, ❻반도체 육성, ❼핵심전략기술, ❽공급망대응, ❾중소·벤처·소상공인, ❿재난안전, ⓫국방·보훈, ⓬국격·외교
 - ※ 추후 경제여건, 정책기조, 관리실익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관리대상 변경 가능
- 핵심재정사업별 ‘전담 성과관리팀’을 구성*하여 연중 집행상황 및 성과를 지속 점검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가시적 성과 창출
 - * 해당분야 민간전문가, 기재부, 사업 소관부처 참여
- 각 핵심재정사업(군)별로 성과목표 달성도, 부처의 이행노력 등의 성과정보를 ‘열린재정’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

④ 성과관리 인프라 확충

- 체계적 성과정보 관리를 위해 성과정보DB를 구축하고, 대국민 성과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 공개 등에 활용('23.1월~)
- 평가 주관부처, 민간 성과관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정성과관리포럼을 개최하여 성과관리 우수사례, 해외 성과관리 동향 등을 공유·논의('23.상반기)
- 부처별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(워크숍, 교육프로그램 등)

※ (별첨) 「 '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」

담당 부서 <총괄>	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	책임자	과 장 김위정 (044-215-5310)
		담당자	사무관 강성빈 (a0909876@korea.kr)
<협조>	기획재정부 집행전략과	책임자	과 장 문상호 (044-215-5330)
		담당자	사무관 전준영 (wnsdud1065@korea.kr)
<협조>	기획재정부 재정성과제도팀	책임자	팀 장 이제봉 (044-215-5470)
		담당자	사무관 안형자 (withja@korea.kr)